

2014

KARA

**시민구조치료지원** 보고서

2020

# 목차

## 1. 개요

‘시민구조치료지원’이란?

개요(사업 절차 및 추진 내용)

## 2.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

### 2.1. 시민구조치료지원 현황

2.1.1. 지원 동물 분류

2.1.2. 치료 질병 분류

2.1.3. 회원 및 지역별 지원 현황

2.1.4. 예산(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지원 금액)

### 2.2.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에게 닥치는 위험 유형

### 2.3. 구조의 공백, 제도적인 문제

## 3.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성과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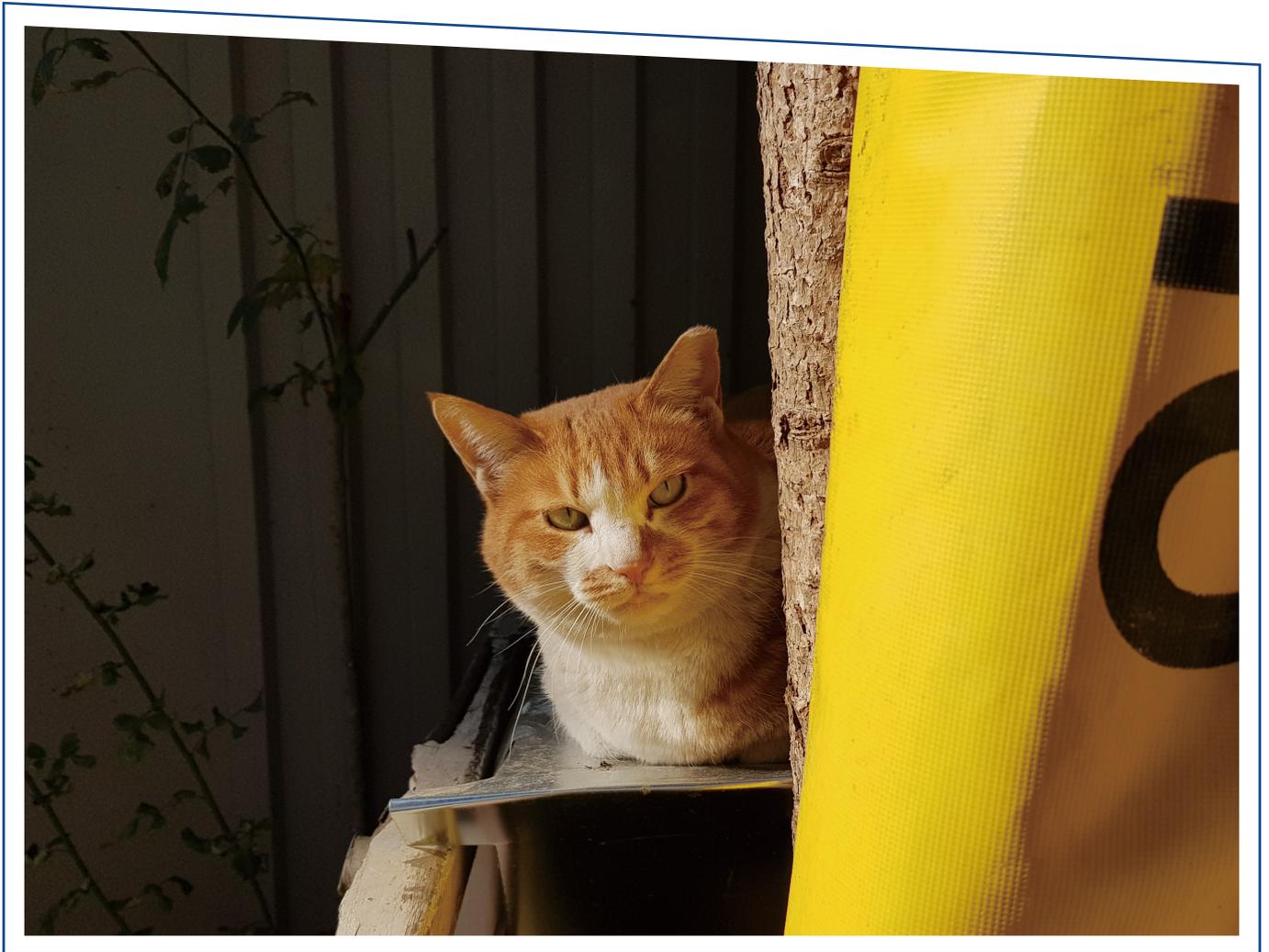
3.1.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성과

3.2.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방향

3.3. 기대효과

## 4. 맺음말

# ‘시민구조치료지원’이란?



2014년도 유기동물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시민구조치료지원은 카라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유기, 사고, 피학대,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동물을 시민이 발하여 직접 구조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구조자가 치료 후 방사 및 입양활동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신청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면 심사를 통해 치료비의 30~50%, 최대 150만원 지원하고 있다. 필요시 입양 홍보 지원을 통해 시민의 동물 구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사고나 학대상황, 질병 등 위기 속에 놓인 동물들의 구조 요청에 카라와 같은 동물단체나 특정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보호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하거나 보살피는 길고양이들 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시민들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구조를 유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 / 개요

KARA

# 사업절차 및 추진 내용

1. 사업 기간 : 2014. 9 ~ 2020. 12. 31
2. 총 사업비 : 418,741,052
3. 세부 지원 기준

## ① 지원대상

- 동물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 등
- 구조자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임시 보호되거나 입양이 결정된 동물(\*길고양이의 경우 야생성이 강하고 길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방사 가능)
- 치료비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단순 검사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구조하여 진료·입원한 동물
- 신청자가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인 경우

## ②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 3개월 이상 정기후원이 유지되고 있는 카라 회원의 경우 최대 50%까지, 비회원이거나 카라 회원가입 3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30%까지 심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50만원)
- 스케일링·미용·호텔링은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조동물이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시 중성화 비용은 50% 지원되며, 개 중성화의 경우 동물등록 필수

### ③ 지원 제한 안내

- 연간 지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 치료비 결제가 완료된 경우
- SNS · 개인 모금 등 별도의 모금을 진행하거나 타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치료내역 없이 단순한 건강검진만을 진행한 경우
- 허위신청 확인 시 지원 금액을 반환하며 카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외
- 시민구조지원은 분기별로 집행되며, 해당 분기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마감 및 지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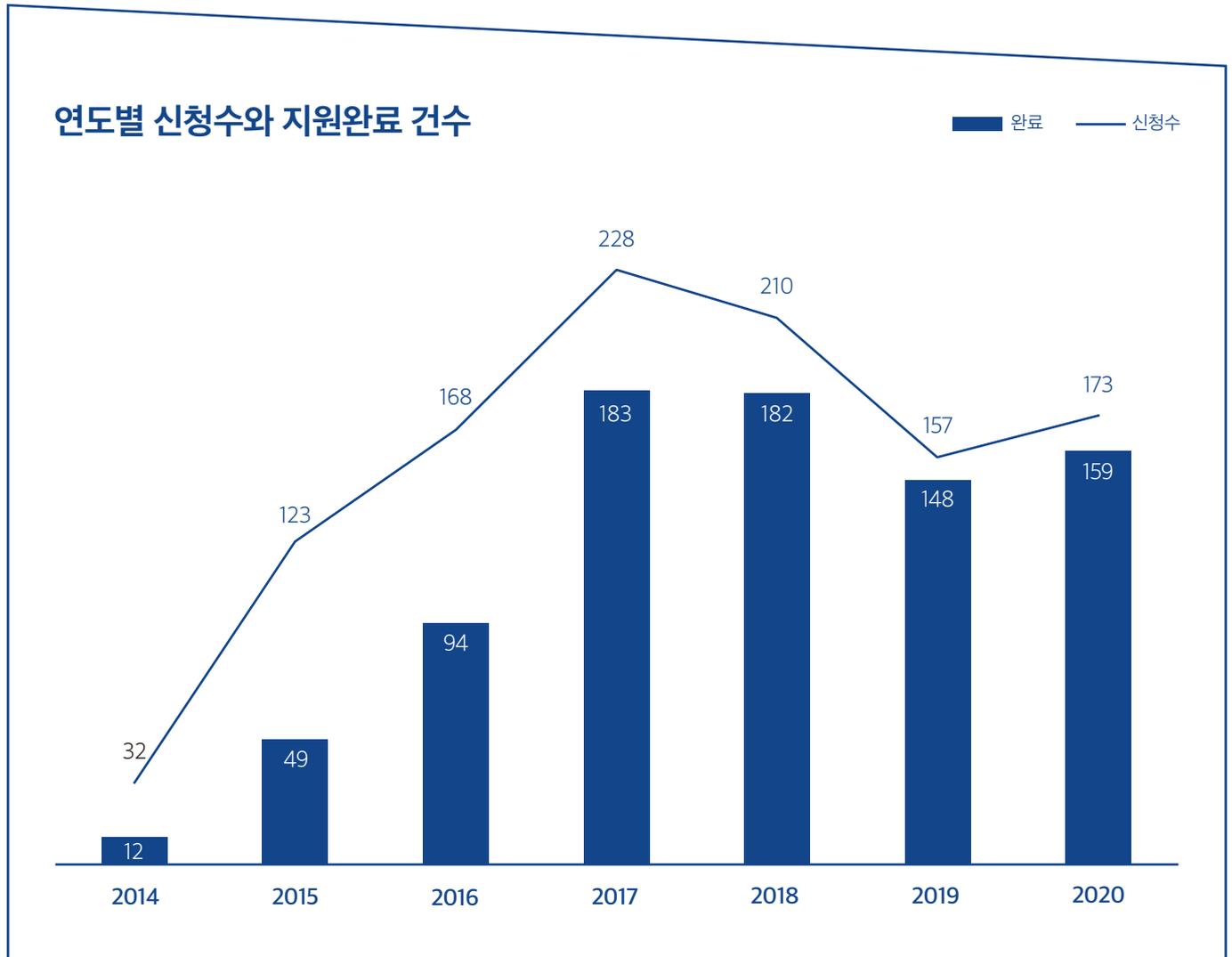
### ④ 진행 과정



### ⑤ 필요 서류

- 구조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후 첨부)
- 구조동물의 현재 사진 3장 이상
  - 정면 얼굴 · 몸 전체가 다 나온 사진
  -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위 사진
  - 너무 흔들려서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은 접수 불가
  - 골절 · 수술 · 마취 시 방사선 촬영이 필수인 경우, 방사선 사진 반드시 첨부
- 진단서(동물의 질병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 청구서(혹은 치료에 대한 가견적서)
-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물병원 통장 사본(병원명이 기재된 통장 사본)
- 개를 구조했을 경우 구조한 개의 반려동물 등록증

# 시민구조치료지원 현황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9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27마리의 동물에 대해 총 5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 12건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1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같이가치'가 동물 치료 지원을 종료한 2017년에는 지원 및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위중하고 긴급을 요하는 건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총액 기준이 10만원에서 30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8년 부터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연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연중 지원받는 동물의 수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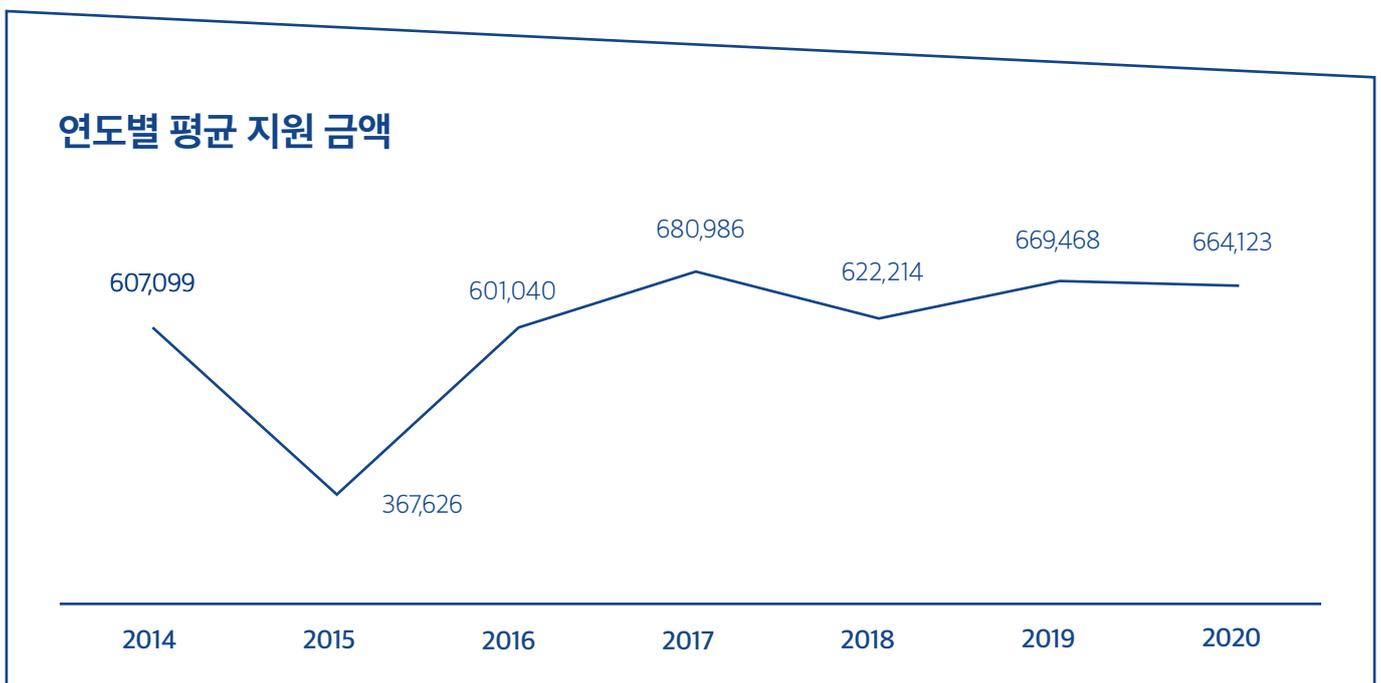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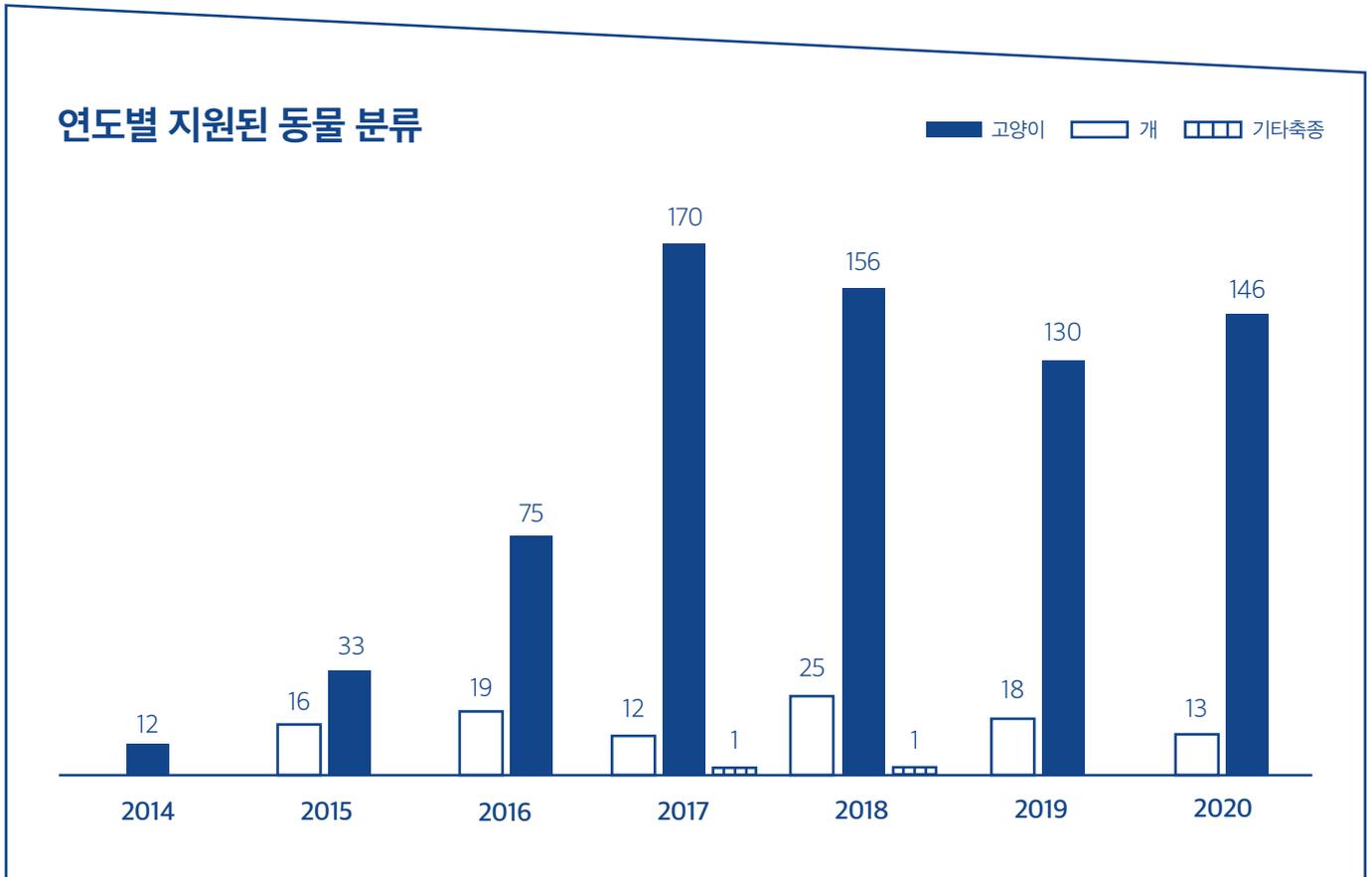
2 /

#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

KARA

## 2.1.1 지원 동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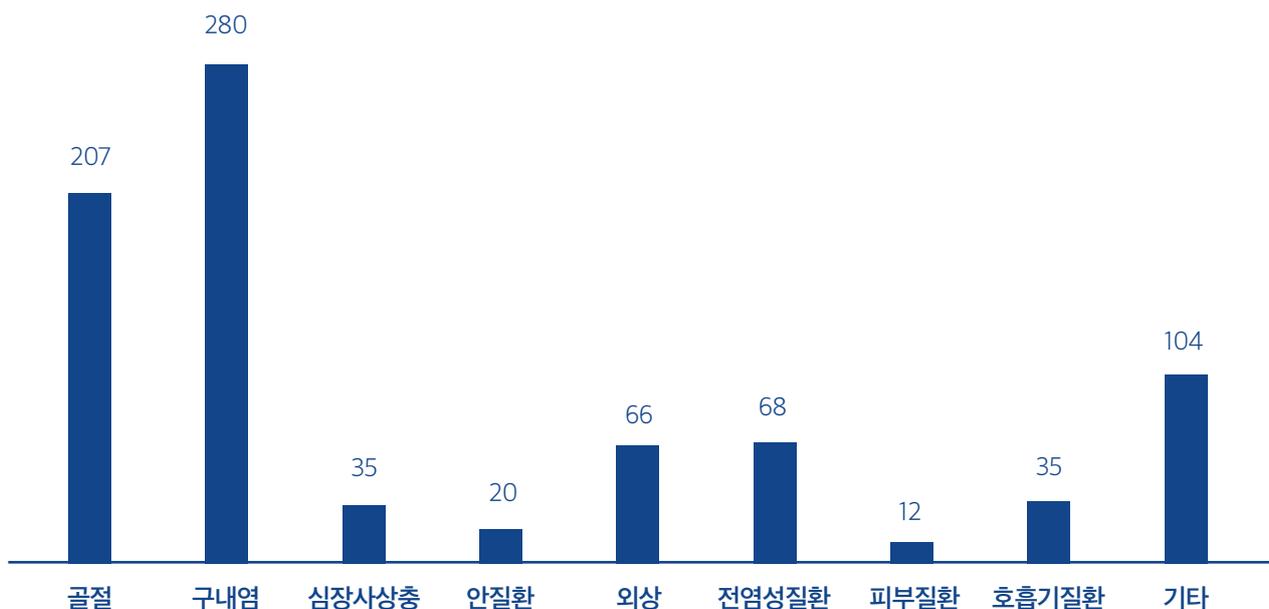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091건의 신청 중 고양이 930건, 개 158건, 토끼 3건이 접수되었고 고양이 722건(87.3%), 개 103건(12.5%), 토끼 2건(0.2%)로 총 827건이 지원되었다.



## 2.1.2 치료 질병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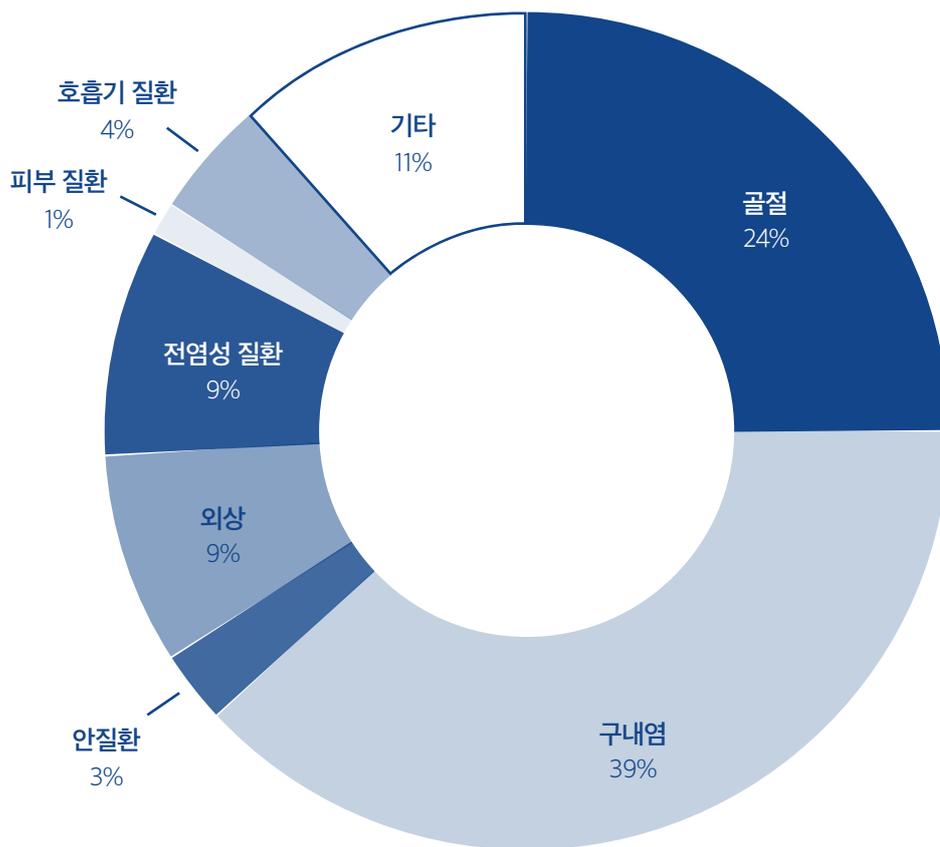
시민구조치료지원의 지원대상이 된 질병으로는 구내염이 280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골절 207건(25%), 전염성질환 68건(8%) 순으로 많았다. 한 가지의 질환을 진단 받아 지원 받은 동물의 수는 623마리이고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 받아 복합적인 치료 지원을 받은 동물의 수는 204마리로 나타났다.

2014년 ~ 2020년 동안 치료지원된 질병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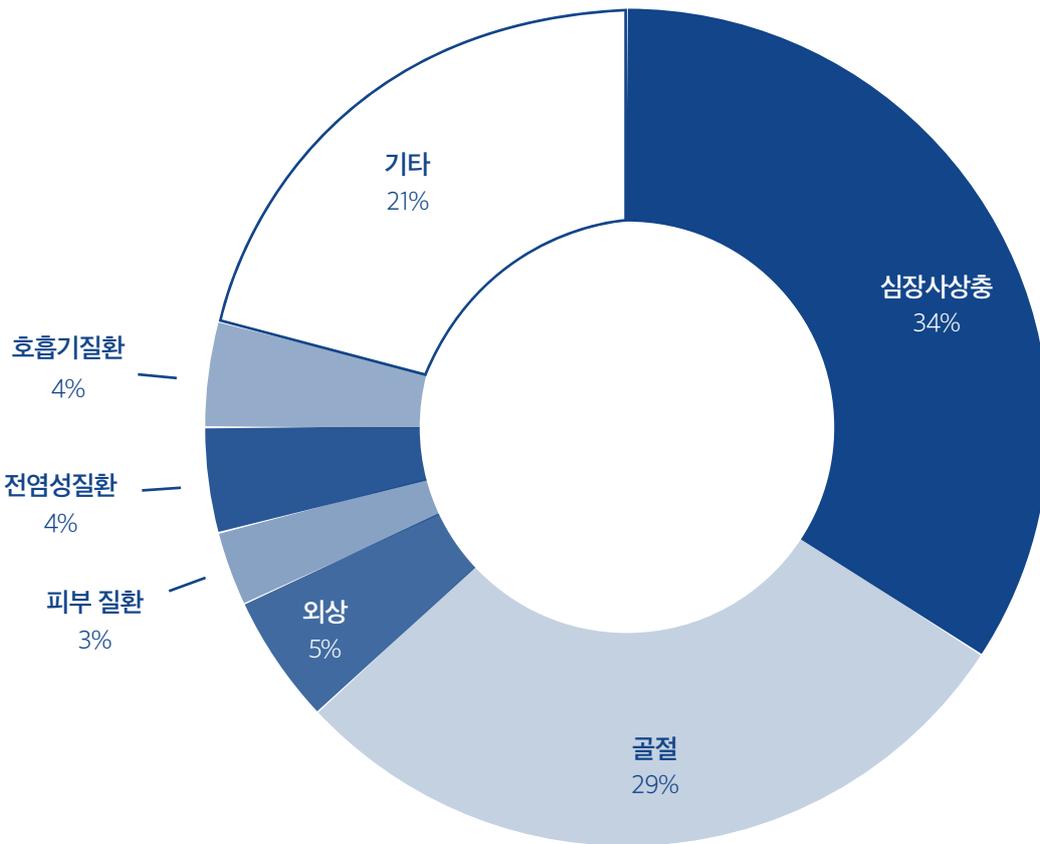
\* 전염성질환에는 범백혈구감소증, 복막염, 홍역 등이 포함되었고 외상에는 교상, 화상, 창상, 자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질환에는 장염, 폐렴, 체장염, 방광염, 자궁총농증, 신부전, 중성화수술, 종양, 저체온/탈수, 장기손상, 탈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14년~2020년에 지원된 고양이의 질병분류



동물의 종 별로 치료를 지원 받은 질병을 살펴보면 722건의 고양이 중 구내염 280건(39%)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골절 175건(24%), 전염성질환 64건(9%), 외상 61건(9%) 순이다.

### 2014년~2020년에 지원된 개의 질병분류



개 90건의 경우 심장사상충이 35건으로 34%를 차지했고 골절 30건(29%), 외상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축종 토끼 2건은 경우는 모두 골절치료를 지원을 받았다.

## 2.1.3 회원 및 지역별 지원 현황

지역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827건 중 서울이 40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가 253건(30%)으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에서만 전체 660건(79%)건을 차지했다. 매년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분포가 넓어지고 있으며 지원 또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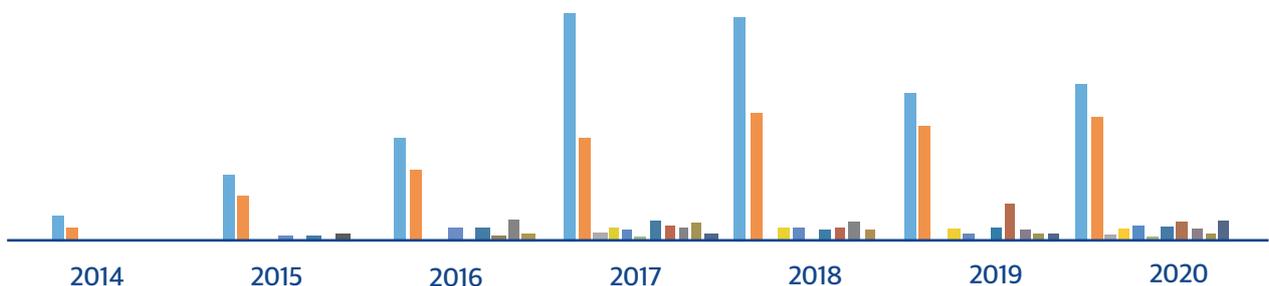
지역별 지원 건수(2014~2020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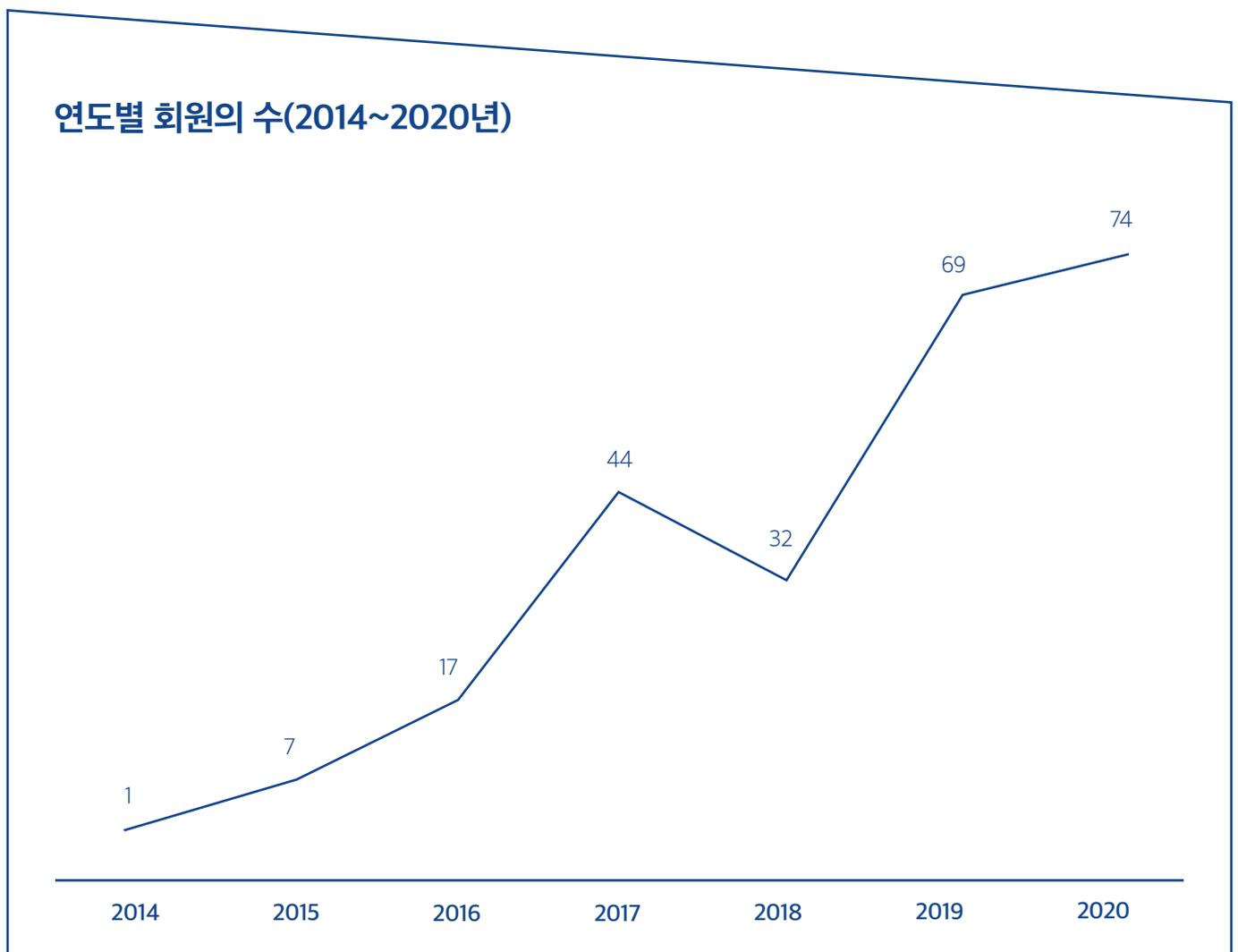
구분 (년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상	부산	울산
2014	9	3									
2015	27	18			1		1		2		
2016	44	30			4		5	1	8	2	
2017	99	44	2	5	4	1	8	6	5	7	2
2018	97	55		5	5		4	5	7	4	
2019	64	50		4	2		5	15	4	2	2
2020	67	53	2	4	5	1	5	7	5	2	8
합계	407	253	4	18	21	2	28	34	31	17	12

지역분포 별 지원 수(2014~2020년)

■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대전 ■ 충청 ■ 광주 ■ 전라 ■ 대구 ■ 경상 ■ 부산 ■ 울산



2019년부터는 회원과 비회원의 지원율에 차이를 두어 각각 최대 50%(3개월 이상 정기회원)와 30%(비회원)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다. 2020년 9월 기준, 시민구조치료 지원을 받은 회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당시 회원이었거나 지원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수가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1.4 예산 (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지원 금액)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민구조치료지원으로 총 약 5억2천만원이 사용되었고, 한 건당 평균 약 63만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2020년 시민구조치료지원 내역

구분 (년도)	신청수 (건)	완료 (건)	개 (건)	고양이 (건)	토끼 (건)	지원금 총액(원)	평균지원 금액(원)
2014	32	12	0	12	0	7,285,190	607,099
2015	123	49	16	33	0	18,013,680	367,626
2016	168	94	19	75	0	56,497,734	601,040
2017	228	183	12	170	1	124,620,374	680,986
2018	210	182	25	156	1	113,242,859	622,214
2019	157	148	18	130	0	99,081,215	669,468
2020	173	159	13	146	0	105,595,630	664,123
합계	1091	827	103	722	2	524,336,682	634,023

#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에게 닥치는 위험 유형

## 구내염과 골절로 구조되는 다수의 고양이들

시민구조치료지원으로 지원을 받은 동물 중 고양이의 비중이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 지원받은 고양이 중 455건이 구내염과 골절치료를 받았다. 고양이들의 지원 사례는 구내염을 포함한 각종 질병, 영역 다툼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외상,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이 다수였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TNR,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등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함께 살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 길고양이로 인한 분쟁, 학대와 로드킬 등 여전히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왼쪽부터. 치료 및 구조 전 모습)골절로 지원받은 '레오', 구내염 치료지원 받은 '가을아', 피부궤양 치료지원 받은 '짱코'

## 유기와 방치로 구조되는 구조견들

개들의 경우 골절과 심장사상충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유기나 방치 등 학대상황에서 구조되었거나 교통사고로 구조된 경우였다. 유기되어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거나 방치되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한 개들은 대부분 심장사상충이 발견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된 경우도 다수였다. 구조는 되었지만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했던 경우,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기도 했다.



\* (왼쪽부터) 올무에 걸려 치료 지원을 받은 '보리'의 구조 직후, 방치로 구조된 후 심장사상충 치료를 지원 받은 '푸들가족',  
줄에 묶인 채 유기되어 심장사상충 치료를 지원받은 '쿠키'의 최초 발견 당시 모습

## 구조되어 도움을 받은 동물은 극히 일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연간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기·유실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9년에는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의 수만 13만마리가 넘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보호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하였다.

구조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들도 많다. 서울시에서만 지난 두해 동안 도로 위나 그 주변에서 발견되어 수거한 동물의 사체수는 2018년에 개 598건, 고양이 6,947건, 2019년에는 개 364건, 고양이 5,5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양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2년간 1만3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길 위에서 로드킬 등으로 사망했다.

다행히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은 전체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의 아주 극히 일부이다.

# 구조의 공백, 제도적인 문제

유기, 사고, 피학대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위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구조 요청과 제보는 증가하지만 인력이나 금전적인 문제,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동물단체나 특정 개인 구조자가 모든 동물구조를 구조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나 119구조대에 동물 구조/신고를 하여 구조가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로 입소한다. 입소된 동물들은 일정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보호비용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류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환되거나 입양이 되면 다행이지만,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전염성 질환일 경우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부재로 인해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이 전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 지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과 학대 상황에 처한 동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치료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3 /**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성과와 방향**

**KARA**

#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성과

## 적극적인 구조와 책임 있는 돌봄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

치료 지원이 이루어진 고양이의 대부분은 구조된 길고양이로 케어테이커나 각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소모임, 쉼터 등에서 구조되었다.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정도의 돌봄을 넘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때, 구조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 풀뿌리 모임에 대한 구조·치료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가장 지원이 많은 질병인 구내염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동물보호 활동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한 제보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구조에 대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구조치료지원으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상황별, 증상에 대한 상담, 구조장비 대여, 입양지원 등으로 동물보호 활동에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 외화를 통해 모금과 캠페인의 확장

기준에 부합한 신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되고 이러한 사례는 모금 콘텐츠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외화를 통해 구조자의 선행을 격려하고 누구나 위기의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며, 나아가 동물보호 캠페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의 방향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즉, 단순 유기동물 발견 신고나 구조요청, 생명의 긴급성을 요하는 치료가 아닌 단순 치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접수된 신청 건에 비해 지원율이 낮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에서 치료 이후 입양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구조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생명이 위중한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복지원이나 이중모금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체화하며 상세하고 정확한 지원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완하였다. 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기준에 맞추어 세밀한 내부 심사와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시민구조치료지원 신청양식 변화

2014	동물 구조 시 구조자가 직접 임시보호/입양 활동, 방사 등 책임
2015	구조동물 사진 및 정보 기재, 생명이 위중한 경우, 치료비의 30~50%까지 지원가능, 이중모금 금지
2016	치료항목 제한(미용, 단순검사 등), 치료비 10만원 이상 50%지원, 소견서 첨부, 최대 지원 금액 설정(200만원)
2017	개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한 기준, 치료비 입금 및 증빙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제공 동의 추가
2018	구조 후 진료/입원 1개월 이내, 연간 지원 1회 제한, 결제완료된 치료비 지원 불가, 입금절차 서류 추가(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치료비 총액 30만원 이상인 경우(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 상향), 최대지원가능금액(150만원) 제한
2019	회원/비회원의 차등 지원을 추가, 분기별 사업진행
2020	개인정보 동의 내용 수정

# 기대효과

##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구조영역의 확장

사회적 제도적 구조·입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양한 유기·학대·방치 등 위기 속에서 동물들을 구조 했을 때 치료비의 부담과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은 치료비의 지원을 통해 구조 및 치료비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축적된 지원 사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와 구조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치료 이후 입양/방사에 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 다양한 지원 사례를 사회적 시스템 기반 마련에 활용

사회적 약자인 동물들은 다양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인 동물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이 처한 위기 상황과 질병, 구조와 치료과정, 입양활동 등 그간 시민구조치료지원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동물을 구조하고 돌봄을 위한 사회적 위기 대응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후원 증대와 동물보호 캠페인의 지속

시민구조치료지원은 카라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구조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회원과 회원의 차등지원율을 두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과 SNS를 통해 모금캠페인과 외화로 카라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으로 꾸준한 외화를 통해 동물보호 활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물권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한다.

4 /

맺음말

KARA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이 구조되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동물구조 활동을 지원해왔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은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로 제한되지 않으며, 단체와 개인이 연대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카라는 동물권의 향상과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위기동물에 대한 구조·치료·보호가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되어 더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활동을 통해 동물구조의 영역을 넓히고 동물보호 활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